
III 야도





여수시 
변천사

Ⅲ. 야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일반개요

- 행정구역 : 여수시 월호동 야도
- 면 적 : 0.05km²
- 토지 소유현황 : 사유지

여수 경호동 소경도 선착장에서 남쪽 해상 280m 지점에 있는 자연녹지 공원 지역이다. 알려진 지명유래는 풀무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불모(불무)섬'으로 불리다가 한자 표기 음을 빌어 '야도'로 부르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어부들이 조선에 진출했을 당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선 후보지를 정하는데 여수 근해에서는 가장도의 동쪽을 최적의 입지로 여겼다.

경도와 함께 근해는 일본 활주 모선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어 봄철부터 초여름 사이에 출어행렬이 붐볐으며, 부산에 수산회사도 이곳에 진출해 어획물 매입과 수송을 하면서 과거 한때 호황을 이뤘다.

1900년대 초 출어 선박들이 여름에 고기잡이 왔다가 겨울에 돌아가곤 했으며,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자 선술집이 들어서 영업을 하였던 곳이다. 섬의 동남쪽에는 멸치 건조장인 용선 수산이 1993년 입주해 멸치 건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수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멸치 건조 작업을 돕고 있다. 근년에는 멸치 조항이 좋지 않아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2) 주요 선착장 간의 거리

신월동 소경도 선착장에서 약 0.3km 지점에 있다. 면적은 51,684㎡이다.

3) 인구 현황

2022년 1월 1일 현재 대경도에는 주민등록상 3세대, 4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남자는 3명, 여자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대수	인구수	남	여
3세대	4명	3명	1명

나. 지형과 지질

야도는 구릉지를 중심으로, 삼각형 형태로 정상부는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은 일부 자갈 해변이 분포하나 남동쪽 해안을 따라 모래 해변이 발달해 있다. 해안 대부분은 주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안에는 1m 전후의 거력들과 함께 간조 시에는 동서쪽으로 넓은 파식대가 분포하고 있다.

지질 구성 암질은 백악기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서쪽 해안에 파도의 침식과 해수의 용식작용으로 해식대지와 노치(Notch)가 형성되어 있다. 토양은 신생대 제4기 적색토가 넓게 분포하며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침식에 의한 단구



자갈 해변



토어



풍화혈



파식대지



타포니(Tafoni)와 풍화혈



모래 해변



관입 암맥

다. 식생과 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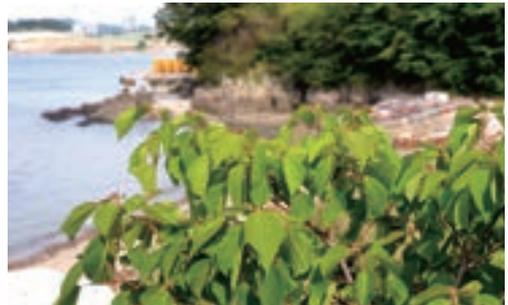
곰솔군락



소태나무



벚꽃군락



예덕나무



야도 지명지도

2. 주민 생애사

1) 주민 전종표(69) 씨 인터뷰



“야도에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지적도를 확인했는데 내가 사는 집 밑에 토지대장에 대지라고 적혀 있어 궁금하여 알아보았더니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 야도에 어업 전진기지가 있어 일본인들이 이 작은 섬에다 유곽을 짓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야도는 자연녹지 공원 지역으로 건축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는 무인도나 다름없으며, 멸치 공장에만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여기에 있는 집들은 거의 오래 전부터 지어진 집들이라고 합니다.”

2) 야도 FRP 조선소 환경 오염 사건



옛 신우 FRP 조선소 부지

2004년 야도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 공원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조선소는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2012년 10월 신우 FRP 조선소가 입주하여 불법 작업

을 하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 해안오염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과 소경도 주민들이 집단 항의하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 일로 주민 4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조선소는 공원녹지법, 공유수면 매립 위반, 불법건축물 설치, 국유지 무단 사용 위반 등 각종 불법을 자행했다. 이에 여수시는 조선소를 상대로 원상 복구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650여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문제의 조선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3) 야도 2024년 교량으로 연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시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잇는 왕복 2차로 1.35km 규모 연륙교를 2024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예산은 모두 1,195억원으로, 국비 40%(478억원), 전남도, 여수시,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에셋이 각 20%(239억원)씩 분담한다.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잇는 연륙교 조감도